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 형태 변형을 통한 도제 주전자 연구

A Study on the Ceramic Teapot  
using shape variation

2014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장 현 순

# 형태 변형을 통한 도제 주전자 연구

A Study on the Ceramic Teapot  
using shape variation

지도교수 이정석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장 현 순

장현순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 목 차

|                             |           |
|-----------------------------|-----------|
| 요약.....                     | i         |
| 표목차.....                    | ii        |
| 도목차.....                    | ii        |
| 작품목차.....                   | iv        |
| <br>                        |           |
| <b>I. 서론</b> .....          | <b>1</b>  |
| 1. 연구목적.....                | 1         |
|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
| <br>                        |           |
| <b>II. 이론적 배경</b> .....     | <b>3</b>  |
| 1. 주전자의 일반적 고찰.....         | 3         |
| 1) 주전자의 정의.....             | 3         |
| 2) 주전자의 시대적 고찰.....         | 4         |
| 3) 동서양 주전자의 발전 배경.....      | 6         |
| 4) 주전자의 기능과 구조적 특징.....     | 7         |
| 5) 주전자의 구조적 분석.....         | 12        |
| 2.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 연구.....      | 15        |
| 1)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         | 15        |
| 2) 주전자의 조형적 분류.....         | 16        |
| 3. 청화의 일반적 고찰.....          | 20        |
| 1) 청화의 기원.....              | 20        |
| 2) 동·서양의 청화.....            | 21        |
| 3) 현대도예에서 표현된 청화.....       | 29        |
| <br>                        |           |
| <b>III. 작품제작 및 해설</b> ..... | <b>32</b> |
| <br>                        |           |
| <b>VII. 결론</b> .....        | <b>44</b> |
| <br>                        |           |
| 참고문헌.....                   | 46        |
| 영문초록(Abstract).....         | 48        |

## 요 약

### 제 목 : 형태 변형을 통한 도제 주전자 연구

도자 식기는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긴 세월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세대의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존재해 왔다. 그중 액체를 따를 수 있는 기능성과 함께 조형성을 가진 주전자는 실용적으로나 장식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도예에서는 실용성을 배제한 조형성만을 강조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와 기능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종래의 용기 개념에서 벗어나기 보다는 기능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조형성이 강조된 형태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전자라는 소재를 선택하고 몸체와 뚜껑, 주구, 손잡이로 이루어진 구조적 특징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구성을 통해 조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주전자의 형태의 내부공간을 유지시키면서 손잡이, 뚜껑, 주구의 조형적 표현을 통해 주전자의 기본 형태에 대한 변형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문양들이나 기법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전자를 제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먼저 주전자의 정의와 역사적 고찰, 구조적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전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부분을 기존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찾아서 분류해 보았고 청화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현대도예작품에서 나타난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작품의 제작방법으로 물레성형을 중심으로 구와 원기등을 기본형으로 하여 내외의 넓이로 형태를 만들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변형시켜 손잡이를 뚜껑에 결합시키거나 수구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성형하였다. 이때 차별된 기물에 청화안료로 장식을 시문하여 형태적인 변형과 함께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소지는 발색이 뛰어난 백자소지를 작품제작에 사용하였다.

결론에서는 주전자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에 초점을 맞추되, 주전자의 기능성을 최대한 살려 일반적인 형태의 주전자와 다른 디자인을 가진 형태를 연구, 제작하였다.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조와 조형적 분류를 통한 형태적 특성, 청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도예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전자의 구조적, 조형적 특징을 적절히 조화시켜 새로운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표 목 차

|                                   |    |
|-----------------------------------|----|
| 【표 1】 손잡이에 따른 주전자 유형 .....        | 8  |
| 【표 2】 주전자의 형태 분류 및 변형의 예 .....    | 31 |
| 【표 3】 뚜껑, 주구 변화 변화형 주전자의 도면 ..... | 32 |
| 【표 4】 문양의 형태 .....                | 34 |
| 【표 5】 투명유 조합비 .....               | 34 |
| 【표 6】 소성 그래프 .....                | 35 |

## 도 목 차

|  |    |
|--|----|
| 【도 1】 구 형 .....                            | 9  |
| 【도 2】 원통형 .....                            | 9  |
| 【도 3】 원뿔형 .....                            | 10 |
| 【도 4】 복합형 .....                            | 10 |
| 【도 5】 주구의 형태 .....                         | 10 |
| 【도 6】 몸통의 전이나 어깨에 붙는 형태 .....              | 11 |
| 【도 7】 뚜껑의 단면도 .....                        | 11 |
| 【도 8】 뚜껑 걸림턱의 형태 .....                     | 11 |
| 【도 9】 기본형 .....                            | 12 |
| 【도 10】 복합형 .....                           | 12 |
| 【도 11】 지렛대 작용 .....                        | 12 |
| 【도 12】 몸체 아래가 넓고 주구가 아래에 달린 주전자 .....      | 13 |
| 【도 13】 몸체 위가 낮고 주구가 위에 달린 주전자 .....        | 14 |
| 【도 14】 주구가 몸체보다 높은 주전자 .....               | 14 |
| 【도 15】 주구가 몸체와 평행인 주전자 .....               | 14 |
| 【도 16】 Richard Notkin - Skull Teapot ..... | 17 |
| 【도 17】 Adrian Sax, Ampersand Teapot .....  | 17 |
| 【도 18】 Wedgwood, Pineapple Teapot .....    | 17 |
| 【도 19】 박은정 - Korean Landscape II .....     | 17 |
| 【도 20】 John Gill, American, 2010 .....     | 18 |
| 【도 21】 Betty Woodman, poulenc, 2002 .....  | 18 |
| 【도 22】 Michael Duval, untitled, 1987 ..... | 19 |

|  |    |
|--|----|
| [도 23] Pomtip Sangvanich, 기하학 주전자, 2001 .....    | 19 |
| [도 24] Peter Shire, Cubist, Steam, 1980 .....    | 19 |
| [도 25] Marek Cecula, Dictator teapot .....       | 20 |
| [도 26] Masanobu, 하나의, 2004 .....                 | 20 |
| [도 27] Michael Weaker, biru teapot, 2011 .....   | 20 |
| [도 28] Kevin Andrew Morris, teapot, 2012 .....   | 20 |
| [도 29] 명청 화운옹문상이병, 원대(元代) .....                  | 23 |
| [도 30] 청화백자봉화문항아리, 청대(靑代) .....                  | 23 |
| [도 31] 청화백자절지화문대접, 명대(明代) .....                  | 23 |
| [도 32] 송죽문호, 15c .....                           | 25 |
| [도 33] 청화백자화조문호, 17c .....                       | 25 |
| [도 34] 청화백자운룡문호, 18c .....                       | 25 |
| [도 35] 청화백자수자문다관, 예도-명치, 18C .....               | 26 |
| [도 36] 청화백자화조문 V.O.C명접시 18C .....                | 26 |
| [도 37] 백자청화송죽대문각병 15C .....                      | 27 |
| [도 38] 백자청화쌍조문반 15C .....                        | 27 |
| [도 39] 이즈닉 대접, 오스만, 15c~16C .....                | 28 |
| [도 40] 이즈닉타일, 16C .....                          | 28 |
| [도 41] 델프트청화접시 18C .....                         | 29 |
| [도 42] 마이센접시 17C .....                           | 29 |
| [도 43] 마이센블루어니언 18C .....                        | 29 |
| [도 44] Jaime hayon, soy pot bird, 2011 .....     | 30 |
| [도 45] Brendan Lee Tang, Manga Ormolu 2011 ..... | 30 |
| [도 46] 전상희, 상상의 동물, 2011 .....                   | 31 |
| [도 47] 김애영, 피붓, 2011 .....                       | 31 |
| [도 48] 이세용, Handbag, 2010 .....                  | 31 |
| [도 49] 이양재, 요산요수주병, 2012 .....                   | 31 |
| [도 50] 이승희, KAO110603, 2011 .....                | 31 |
| [도 51] 김순식, untitled, 2007 .....                 | 31 |

## 작품목차

|                            |    |
|----------------------------|----|
| [작품 1] Teapot - I .....    | 36 |
| [작품 2] Teapot - II .....   | 37 |
| [작품 3] Teapot - III .....  | 38 |
| [작품 4] Teapot - IV .....   | 39 |
| [작품 5] Teapot - V .....    | 40 |
| [작품 6] Teapot - VI .....   | 41 |
| [작품 7] Teapot - VII .....  | 42 |
| [작품 8] Teapot - VIII ..... | 42 |
| [작품 9] Teapot - IX .....   | 42 |

# I. 서론

## 1. 연구목적

현대도예는 사회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의식과 생활도 변화하게 되었는데,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미적 경험을 중시하고 자유로운 표현방식을 우위에 두는 소위 순수 미술적인 사고 유형이 도예가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제까지 기술과 재료, 기능, 장식 등 공예적 요소에 가려져 있던 도예가들은 전통적인 도예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조형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현대미술의 개념이 공예에도 그 영향을 미치면서 기능의 의미는 조형성과 더불어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공예품의 보편적인 형태 구조는 작가의 개성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예술품으로서 기능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긴 세월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자 식기는 그 세대의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존재해 왔는데 이러한 도자 식기에서도 액체를 따를 수 있는 기능성과 함께 조형성을 가진 것은 주전자일 것이다. 주전자는 실용적으로나 장식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에서 보여 지는 작품은 실용성을 배제한 조형성만을 강조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의 용기의 개념에서 벗어나기 보다는 형태와 기능의 요소를 유지하면서 기능에 따른 구조를 조형적인 변화를 통하여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전자를 소재로 선택하여 몸체와 뚜껑, 주구, 손잡이로 이루어진 구조적 특징을 활용, 다각적인 구성을 통해 기능성과 조형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고자 한다. 주전자의 형태의 내부공간을 유지시키면서 손잡이, 뚜껑, 주구의 조형적 표현을 통해 주전자의 기본 형태에 대한 변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문양들이나 기법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조형성과 기능성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주전자를 제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존의 제품화 된 주전자들은 기능성과 심미성 등 제품으로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분명하나 다양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전자가 가진 조형성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전자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능성과 조형성을 갖춘 도제 주전자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주전자의 정의와 역사적 고찰, 구조적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전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부분을 기존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찾아서 분류해 보았고 청화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현대도예 작품에서 나타난 주전자의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제작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화 된 형태인 구와 원기둥을 기본형으로 하였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서로 결합하거나 추가하여 변형시켰다. 소지는 발색이 뛰어난 백자소지를 작품제작에 사용하였다.

작품의 제작방법으로 물레성형을 중심으로 15cm 내외의 넓이로 형태를 만들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변형시켜 손잡이를 뚜껑에 결합시키거나 수구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주전자의 다각적인 형태적 변형을 연구하였다. 이때 차별된 기물에 청화안료 시문하여 형태적 변형과 함께 장식적 효과를 주었다. 유약은 투명유를 사용하였고 1250℃ 재벌 환원소성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전자의 일반적 고찰

#### 1) 주전자의 정의

우리말 큰 사전에는 주전자란 ‘물이나 술 따위를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귀때와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쇠붙이나 사기로 만든다.’<sup>1)</sup>라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전자, 수주, 관자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져 왔으나 현대에는 거의 주전자라는 이름으로 통칭된다.<sup>2)</sup> 주전자는 액체를 담아서 잔에 따르거나 데우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미적 요소를 가미하여 실용성과 예술성을 가진 도구로 제작되고 있다.

주전자는 도자기에서 총체적 결정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도제 주전자는 고온 소성된 용기이기에 인체에 무해하며 살균이 용이하고 기물자체의 변질화가 없어서 오랜 시간동안 곁에 놓고 쓸 수 있으며, 우리생활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용품으로서 타 재료에 비해서 아름다움과 신비감이 있다. 또한 상품화로서는 가치가 있으며 고급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용기로서 미적 가치를 부여한다.<sup>3)</sup>

주전자는 술과 차 같은 액체를 담거나 차를 우리기 위한 도구로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로 결합된 구조가 독특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형태와 문양, 재질에 따라 미적 가치를 갖추게 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오래된 기물은 당시의 문화와 역사, 희귀성이 결합되어 귀중한 문화재가 되기도 한다.<sup>4)</sup>

주전자는 예술적, 공예적 의미도 갖고 있다. 도예가는 주전자의 구성요소인 몸체, 주구, 손잡이, 뚜껑 등을 디자인, 비례 등을 고려하여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술의 연마가 필요하다. 작가의 창의성과 숙련된 기술적 솜씨의 조화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소성과 정에서 다양한 색깔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의 지식들도 필요하며 불을 통해 소성을 해야 하므로 이런 성분들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1) 신기원, 신준원,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8, p 2065

2) 박연태, 「용기 주전자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3) 박차선, 「도제 주전자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4) 미스키 타카토시, 김인규(역), 「동서도자교수사」, 눌와(주), 2001

감지해야 한다. 또한 기물의 형태와 문양을 독창성은 도예가의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전자는 종합공예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 2) 주전자의 시대적 고찰

인류가 사용하는 생활용기 중에서 흙은 가장 오래된 재료이다. 점토를 불에 구워서 토기를 만든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경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5)</sup> 우리나라에서의 초기 주전자의 유래는 삼국시대로 도제 주전자의 초기로 보여 지는 토기로 제작된 동물형의 귀배토기, 부리토기라고도 불리는 주구토기(注口土器)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주구토기란 그릇 안에 담긴 액체를 쉽게 따를 수 있도록 그릇 상단부에 부리 모양의 주둥이나 부리구멍을 만들어놓은 형태의 토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주구토기 이외에 기마인물형 토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것들은 일상생활 용품으로는 실용성이 결여된 명기나 의기로 사용되기 위한 시도였다고 여겨진다.<sup>6)</sup> 그 이후 주전자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현재에 이르는 주전자와 같은 유사한 형태는 통일신라시대에 현재의 주전자 형태를 갖춘 토기가 나타나면서 부리토기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몸통, 주구, 손잡이, 뚜껑이 갖추어진 형태의 주전자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은제 주전자를 비롯하여 청동제, 도자제주전자 등이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전자의 형태적 발전은 차의 유행과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종교로서 선종(禪宗)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여겨왔으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시는 차를 담은 찻잔과 주전자 등은 최고의 정신적인 면과 기술을 강조하였다고 한다.<sup>7)</sup> 이는 우리나라의 차 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차 문화는 고려시대에 매우 성행하였으며, 이것은 곧 주전자의 활용범위가 넓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주전자는 그 시대의 도자문화를 상징하는 청자 중에서 상당히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청자주전자는 동체의 형태가 다양함은 물론 손잡이나 주구, 뚜껑 등의 구조 역시 형태에 알맞게 때로는 호화롭게 장식되었고 각종 상징형의 주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죽순, 연꽃, 참외, 석류 등 식물을 상형한 주전자와 어룡형 등은 상징성이 강조되어 실제 사용에는 불

5) 이경성, 「공예통론」, 수학사, p51

6)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1998.

7) 박종훈, 「고려조선조 주전자의 형태와 문양」,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 발간 도예연구 제2집, 1997.

편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뚜껑과 몸통에는 꿇을 묶어 사용할 수 있게 고리를 부착하였다. 기능성을 갖춘 우수한 조형물로서 주구와 손잡이의 형태 등 부착 위치에 따라서 실용성이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여 만든 용기로 고려도공의 숙련된 기술을 엿 볼 수 있다.<sup>8)</sup> 고려시대에서의 주전자가 여러 유형의 손잡이와 주구를 부착시켜 다양한 형태를 보인 것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주전자는 목이 긴 병이 적고 대부분 구형인 형태를 중심으로 주전자가 발달되었자는 뚫한 주구의 넓이가 넓어져서 병형 보다는 호형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조선시대의 차 문화는 고려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유교사상 아궐전자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비들의 의해 그 명맥이 미미하게 이어져 왔다. 조선 유교에는 조정과 왕실의 제도나 의례에서 발전했던 고려의 차 문화를 잇고자 노력하였고<sup>9)</sup> 고려 말엽 주전선비들이나 귀족층에서 즐겨 마시던 차탕(거친 떡차나 잎차를 끓여 걸러 낸 맑은 차물)은 조선시대에 주류를 이루어 조선 유예는 왕이 중국 사신에서 하사한 다구도 「차탕다구(茶湯茶具)」, 혹은 「주석차탕다구(主席茶湯茶具)」였고 궁중제사에도 차탕을켜 다양했으며 세종 때는 명나라 사신에게 차 3말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차 문화는 귀족적전기 보단 소박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차 문화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어 차의 품격도 떨어지고 차시(茶時)나 차모(茶母)등도 본래의 뜻을 잃어 갔으며 형식적으로만 남게 되었다.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고려 때보다는 차 문화가 쇠퇴하였으나 400편이 넘는 차에 관한 시나 글, 또는 민요가 전해오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말차(末茶)가 쇠퇴하고 잎차를 떡차를 끓인 차탕을 즐겨 마시게 됨에 따라 다기도 귀족적이거나 화려하지 않다.<sup>10)</sup>

근대 도자로 구분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상징적이거나 주요인 광주 분원요가 폐지되는 고종 20년인 1883년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학교육의 실시와 도예부흥운동이 시작되는 1955년경까지로 볼 수 있다. 1910년경에는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에서 비원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지만 전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일본인과 상류층에 활발하게 판매되었다.<sup>11)</sup>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백색의 투박한 사발, 대접류가 주류를 이루었고 한국전쟁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도자산업이 파괴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근대 산업도자가 활발한 시기로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는 주문제작과 과거 유물을 재현하는 곳이 많았다. 국내에는 주전자의 수요가 많지 않아 다양하고 많은 양의 주전자는 찾아

8) 육홍명, 「고려시대 청자주전자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9) 전완길(1987), 「한국화장문화사」, (서울:열화당), p197

10) 정영선(1990), 「한국 차문화」, 너럭바위, p229

11) 신상호, 「한국도예」,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p12

볼 수가 없다.

현대 도자기 주전자의 디자인을 종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인 요소에 종교적, 사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복합적인 형태였음에 비해 현대에는 과거와 같은 기본 틀에서 벗어나 연령별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전자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 3) 동서양의 주전자 발전 배경

17세기 유럽과 아시아와의 교역의 중요한 품목이었던 차와 주전자는 결국 유럽인으로 하여금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무역의 초기 단계에 차와 함께 포장되어 유럽으로 건너간 중국의 여러 가지 유형의 도자기 중 이성도자기는 중요한 디자인 자료가 되면서 서양 세계 전역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sup>13)</sup> 네덜란드에서는 중국의 청화백자를 모방한 델프트웨어가 성행하였고, 유럽 곳곳에서 중국의 청화백자 주전자를 모방한 도기들이 제작되었다. 18세기에는 독일의 마이센 자기제작소에서 유럽최초로 자기 제작이 성공하였고 이후 십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찻주전자를 비롯한 자기를 생산, 유럽 전역으로 보급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 유럽 전역으로 보급된 자기 제조술과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 기술 발달로 찻주전자 역시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명목시에는 일본풍이 유행하여 일본 찻주전자를 모방한 주전자들이 제작되었다.<sup>14)</sup>

20세기 중반에는 생산의 모든 프로세스를 작가가 전담한다는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원은 1920년 버나드 리치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공방도예라고 불리고 있다. 공방도예가로 활동한 톰 터너는 ‘주전자는 작가에서 주어진 난제를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미학적으로 요약한다.’라고 말하며, 그의 목표는 단지 물을 따르는 도구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100% 기능적인 주전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기능은 다른 어떤 시각적인 가치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sup>15)</sup> 20세기 후반으로 향하면서 주전자는 오브제의 의미를 극대화시켜 새로운 조형표현의 도구로써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공예작가들의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sup>16)</sup> 또한 산업발달로 인한 대량 생산 체계가 등장, 공예가와 생산라인이 결합된 생산방식이나 그보다 더

12) 주연희, 「백자 주전자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

13) <http://www.claypark.net>

14) 미스키 다카토시, 김인규(역), 「동서도자기교류사」, 눈와(주), 2001

15) 박수아, <http://www.claypark.net> 학술자료실, "The story of teapot"

16) 이주희, 「유기적 곡선을 응용한 도제 주전자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9

저렴한 기성 제품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중 기성의 찻주전자는 대개 보편적인 형태나 기존 제품의 모방에 지나지 않아 그만큼 새로운 디자인이나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sup>17)</sup>

#### 4) 주전자의 기능과 구조적 특징

주전자의 형태적 구조는 기능에 의해 좌우된다. 주전자의 정의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전자는 ‘액체를 저장, 따르는’ 용기이므로 액체의 안전한 보관과 배출이라는 기능적 요소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특히 주전자는 액체의 적정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따를 때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적 요소로 인해 좌우되는 주전자의 구조는 크게 몸체, 주구, 손잡이, 뚜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몸체

물을 저장하는 부분으로, 주전자의 몸체는 내용물의 온도와 맛, 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몸체 바닥의 면적이 넓을수록 용량이 커지고, 안정감 있는 형태가 된다. 주전자의 몸체는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넓으면 물을 따를 때 기울이는 각도가 작아지고,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좁으면 기울이는 각도가 커진다.<sup>18)</sup> 주전자에서 이상적인 몸통 형태는 구형으로, 구형의 찻주전자의 경우 찻잎의 점평현상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차를 우려내기에 알맞다.<sup>19)</sup>

##### (2) 주구

주전자 안의 액체를 따르는 통로 역할을 한다. 주전자에서 주구가 몸통보다 너무 낮으면 액체를 많이 채울 수 없고, 너무 높으면 주구로 액체가 나오기 전에 뚜껑에서 쏟아질 염려가 있다.<sup>20)</sup> 액체는 몸통을 타고 흐르지 않고 깨끗하게 멈춰야 하고, 방울 지거나 막힘없이 알맞게 따라져야 한다. 이러한 주구의 효율성은 주구의 길이, 부착각도, 구멍의 너비와 굴곡진 형태, 전의 형태, 내부 표면의 평탄성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sup>21)</sup> 주구에서 전의 형태는 둥근 것보다 뾰족하게 각이 진 것이 액체를 따를 때 더 좋다.<sup>22)</sup> 주구의 형태는 곧

17) 송누리, 「도제 찻주전자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6

18) 안혜숙, 「도제 커피포트의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27p

19) 염혜숙, 「홍차」, 김영사, 2004, 97-98p

20) 김현경, 「시각적 즐거움을 담은 도제 주전자 형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10-11p

21) 안혜숙, 「도제 커피포트의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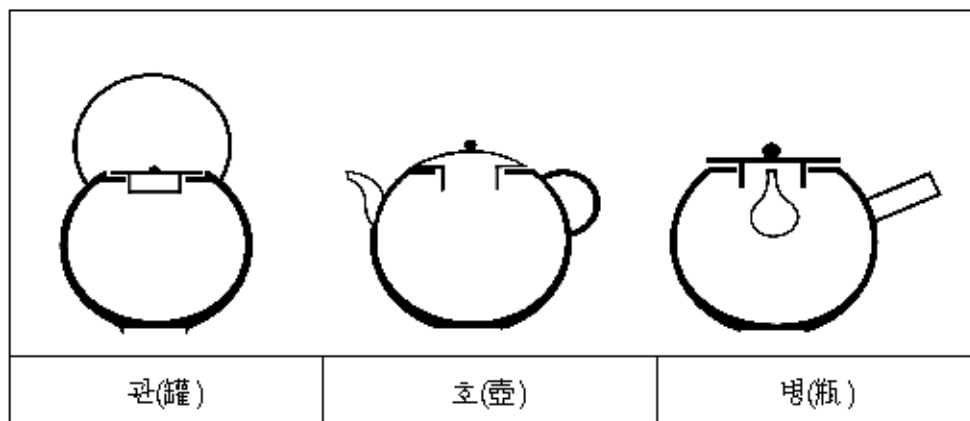
게 올라가 끝만 구부러진 것, S곡선으로 구부러진 것, 45도로 완만히 기울인 것, 몸체와 직접 연결된 것 등이 있다.

### (3) 손잡이

손잡이는 주전자를 들어 올리는 것이 일차적인 역할이며, 고온의 액체가 담겨진 몸체에 잡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전자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sup>23)</sup> 손잡이는 주전자 전체를 지탱해야 하므로 역학적 배려가 필요하다. 손잡이는 주구와의 관계, 손잡이의 너비와 두께, 손잡이의 각도, 손잡이의 지지대, 몸체와의 거리 등과 연관된다. 손잡이의 꺾임각도는 90도보다 큰 편이 좋은데, 그보다 각도가 적으면 손목에 무리를 주거나 힘이 지나치게 많이 들게 된다.

손잡이의 위치는 몸체에 담긴 뜨거운 내용물로부터 손이 안전할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몸체의 무게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sup>24)</sup> 또한 손잡이가 몸체의 상단에 위치할수록 손의 움직임이 커지고, 손잡이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짧으면 몸체의 무게를 견디기가 어렵다.<sup>25)</sup> 손잡이는 붙는 위치에 따라 관(罐), 호(壺), 병(瓶)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표 1】



【표 1】 손잡이에 따른 주전자 유형

22) 닐 프렌치, 「도자기 형태·장식·색채」, 아트나우, 2005, 99p

23) 이주희, 「유기적 곡선을 응용한 도제 주전자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9-1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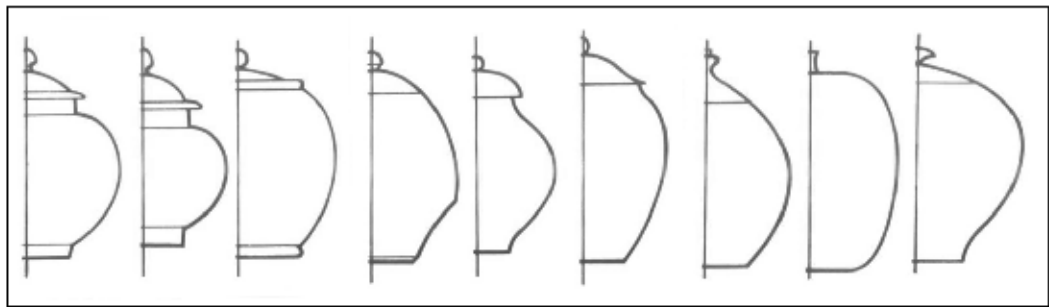
24) 안혜숙, 「도제 커피포트의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29p

25) 이진수, 「茶의 이해」, 꼬레알리즘, 2005, 1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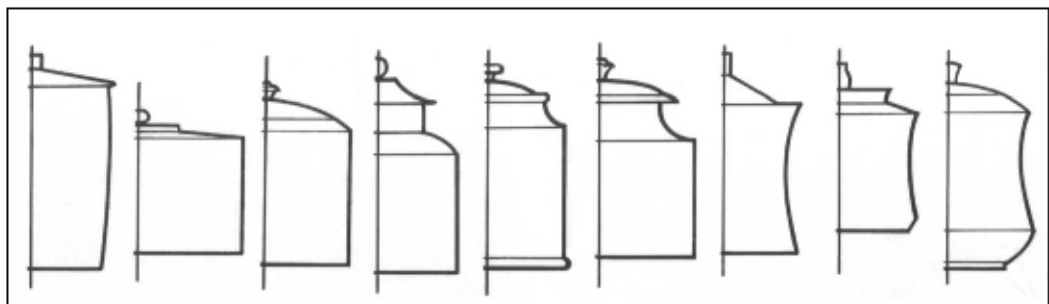
#### (4) 뚜껑

주로 몸체의 윗부분에 위치한다. 액체의 유지와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며, 향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뚜껑은 액체를 따를 때 뚜껑 꼭지를 손으로 누르고 따르는 형태와 뚜껑에 돌기 부분을 만들어 맞물리게 하는 형태가 있다.<sup>26)</sup> 뚜껑의 크기는 몸체의 형태와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뚜껑이 너무 작으면 주전자 내부를 닦을 때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뚜껑에는 대개 꼭지가 달리는데, 뜨거운 뚜껑을 쉽게 잡고 여닫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장식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주전자의 뚜껑에는 직경 약 1mm의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주전자 내부의 기압을 조절하여 담긴 액체가 잘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sup>27)</sup>

#### <몸체의 형태>



[도 1] 구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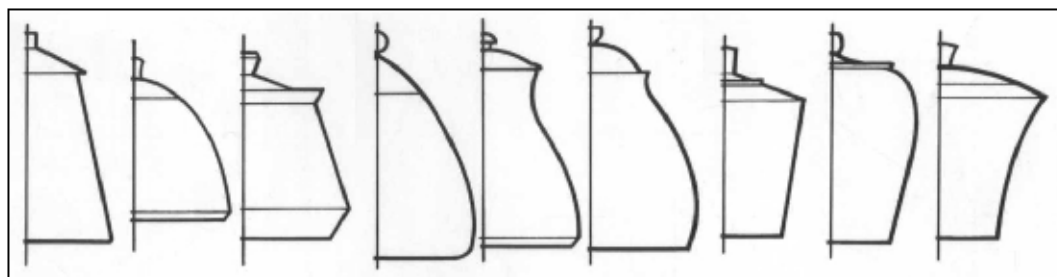


[도 2] 원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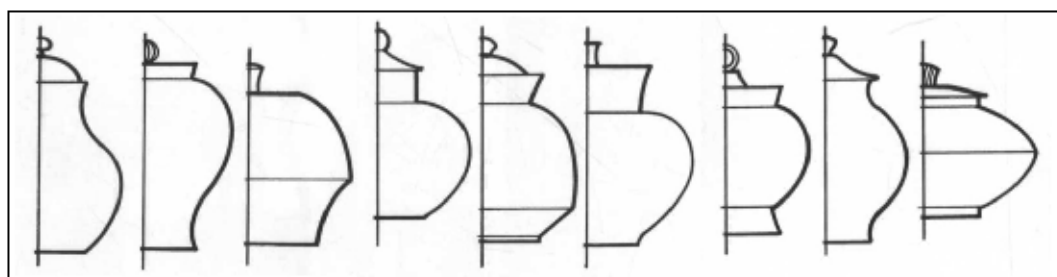
26) 이주희, 「유기적 곡선을 응용한 도제 주전자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8-10p

27) 안혜숙, 「도제 커피포트의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2004, 8-1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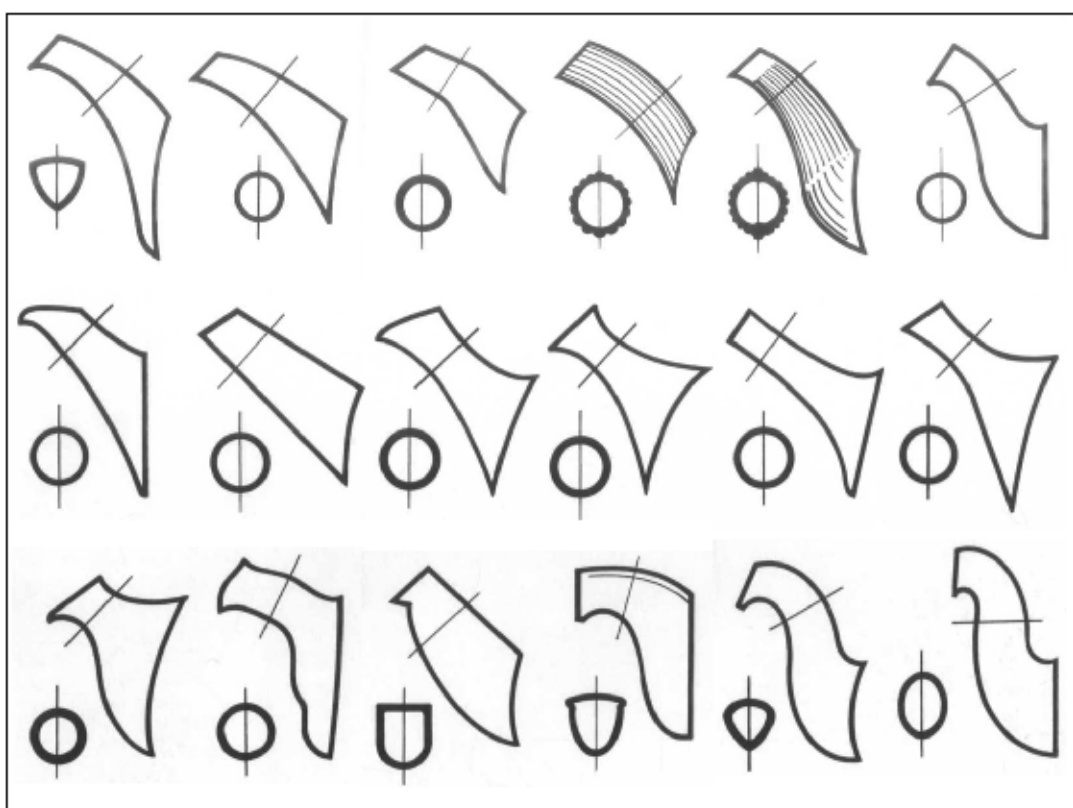


[도 3] 원발형



[도 4] 복합형<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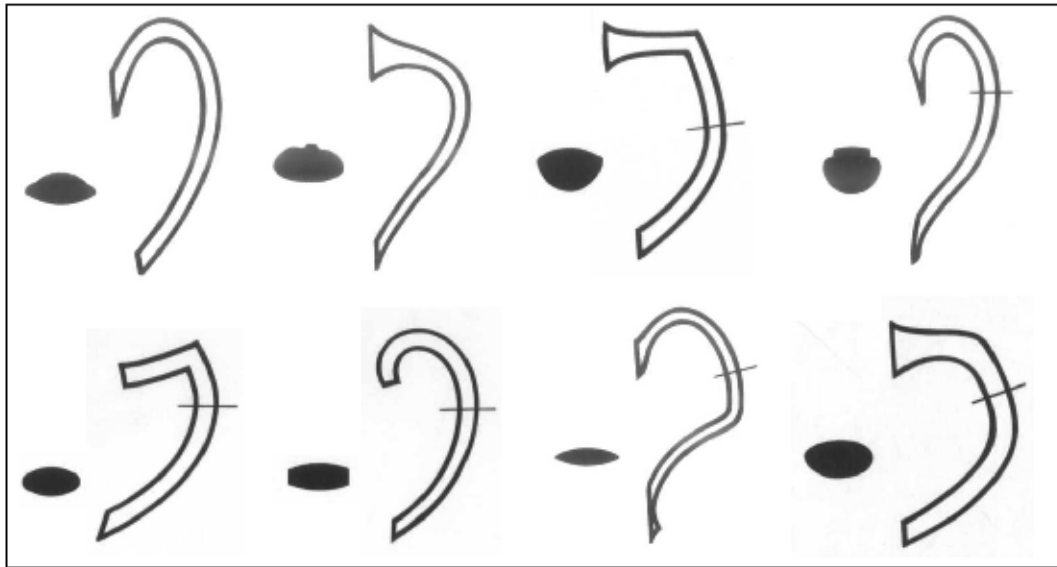
#### <주구의 형태>



[도 5] 주구의 형태

28) 닐 프렌치, 「도자기 형태·장식·색채」, 아트나우, 2005, 29P.

<다양한 손잡이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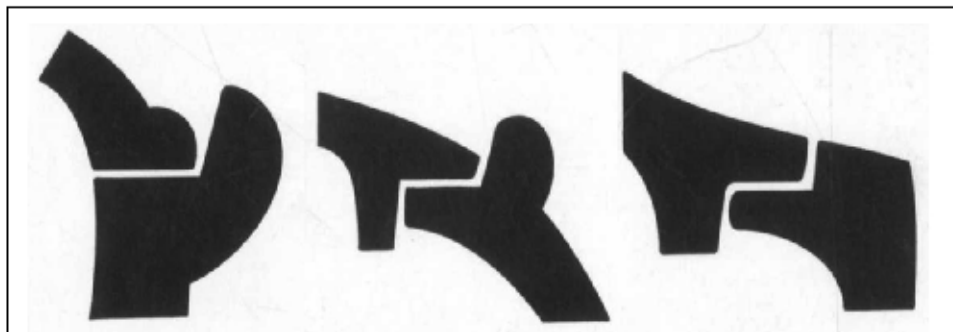


[도 6] 몸통의 전이나 어깨에 붙는 형태<sup>29)</sup>

<뚜껑의 형태>



[도 7] 뚜껑 단면도<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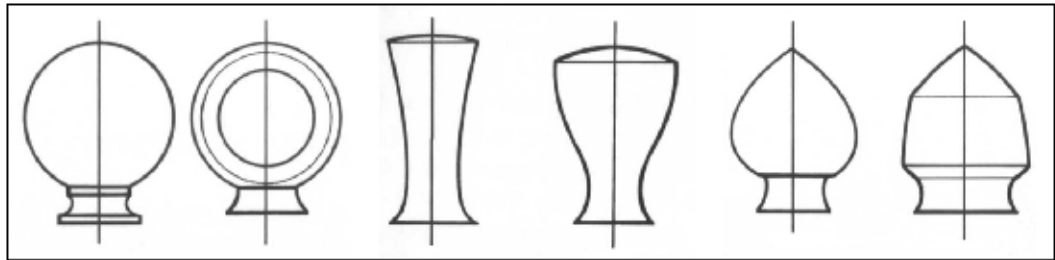
[도 8] 뚜껑 결림턱의 형태<sup>31)</sup>

29) 닐 프렌치, 「도자기 형태·장식·색채」, 아트나우, 2005, 35-3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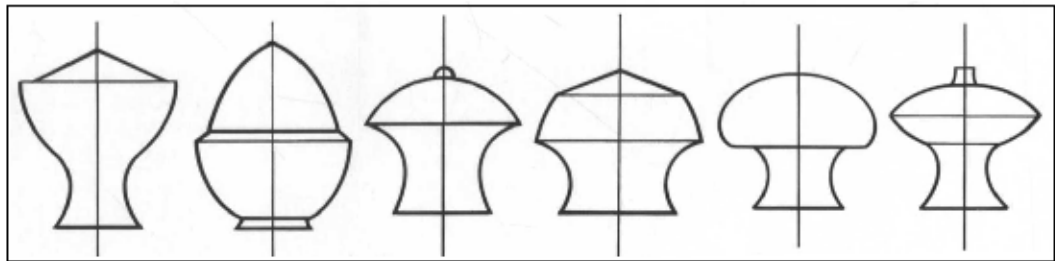
30) 닐 프렌치, 「도자기 형태·장식·색채」, 아트나우, 2005 43P

31) 안혜숙, 「도제 커피포트의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34P

<뚜껑 꼭지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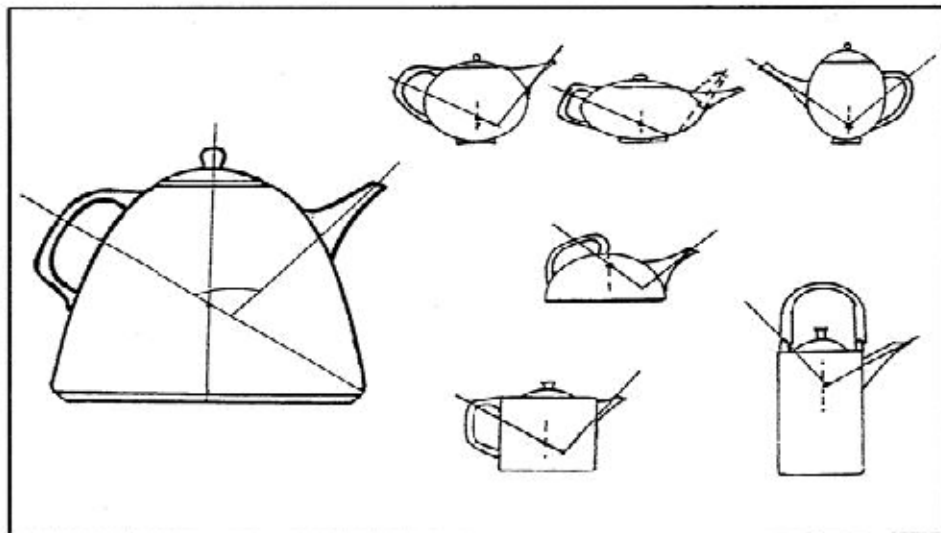
[도 9] 기본형



[도 10] 복합형<sup>32)</sup>

5) 주전자의 구조적 분석

주전자는 여러 가지 세부구조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의 용기이다. 때문에 각 세부구조의 형태는 물론 각 구조간의 위치, 크기, 비례에 따라 사용자가 지탱하는 힘의 크기나 동작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특히 손잡이, 몸체, 주구 간의 관계는 사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도 11] 지렛대 작용

특히 사용자의 손과 연결되는 손잡이는 사용자의 손가락 길이와 두께, 손아귀와 팔목의 힘, 관절의 움직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잡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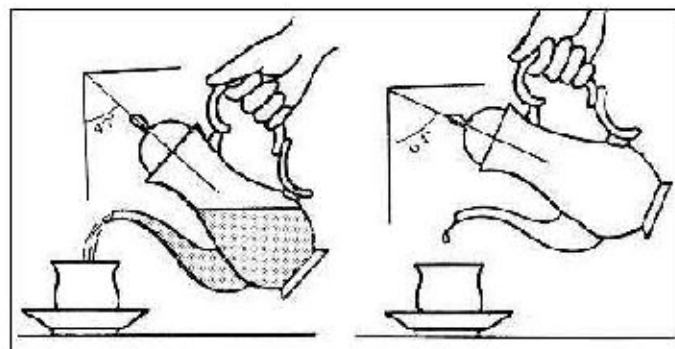
32) 닐 프렌치, 「도자기형태·장식·색채」, 아트나우, 2006 43P

통해 사용되는 용기는 손잡이 없이 사용하는 용기보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2~3배의 힘이 더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손목에 지나친 긴장감을 주게 된다.<sup>39)</sup> 그 이유는 사용자의 손이 용기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즉, 손잡이가 주전자의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 손잡이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은 손잡이의 형태인데, 특히 단면의 형태가 중요하다. 손잡이의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에 가까운 것이 좋은데, 손잡이 단면이 둥글면 사용자의 손안에서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안정감이 없다. 또한 손잡이의 너비가 너무 좁거나 넓어도 안정감을 잃게 된다. 때문에 손잡이와 크기와 형태는 손바닥의 폭, 손가락의 길이 등 인체 치수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느끼는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잡이와 주구의 배치도 아주 중요한데 주전자 몸체의 중심에서 무게의 평형을 이루는 90도 지점에 손잡이와 주구를 각각 배치하여 지렛대의 원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된 주전자는 손목의 작은 움직임으로도 쉽게 들리거나 따라지며 실제 무게보다 무게감이 덜하다.[도 12]

주전자 안의 액체를 따를 때 기울어지는 각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아주 적은 각도만 기울여도 액체가 따라지면 자칫 고온의 액체가 쏟아져 사용자가 다칠 수 있고, 심하게 기울여야만 액체가 나오는 주전자는 사용자의 손목에 무리를 준다. 또한 몸체 내부의 액체가 거의 다 따라졌을 때 기울기가 너무 크면 주전자의 전 부분으로 액체가 넘치거나 뚜껑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러한 기울기는 주구의 위치와 몸통 형태에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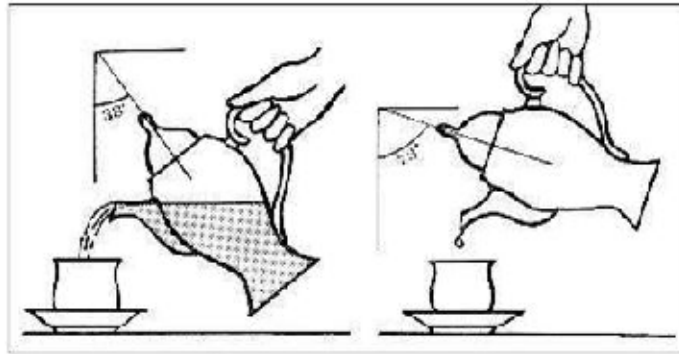
가) 주구가 몸체 아래에 위치하면 위에 위치한 것보다 가득 찬 내용물이 따라질 때의 기울기가 크다. 그러나 내용물이 거의 다 따라졌을 때는 기울기가 더 작다.



[도 12] 몸체 아래가 넓고 주구가 아래에 달린 주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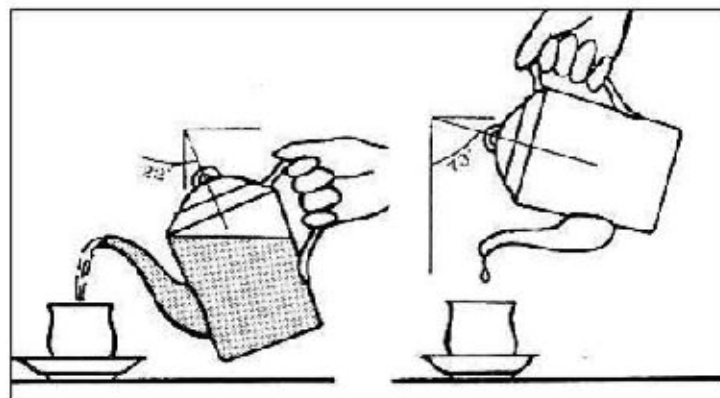
39) 안혜숙, 「도제 커피포트의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12~18P

나) 몸통의 위가 아래보다 넓은 형태는 아래보다 좁은 형태보다 따를 때의 기울기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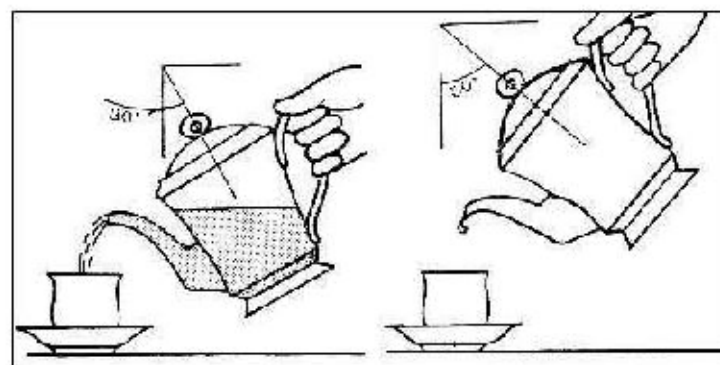


[도 13] 몸체 위가 낮고 주구가 위에 달린 주전자

다) 주구의 높이가 몸체의 높이보다 높으면 몸체의 높이와 평행한 주구보다 가득 찬 내용물을 따를 때의 기울기가 작다. 그러나 내용물이 거의 다 따라졌을 때의 기울기는 더 크다.



[도 14] 주구가 몸체보다 높은 주전자



[도 15] 주구가 몸체와 평행인 주전자<sup>34)</sup>

34) 안혜숙, 「도제 커피포트의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20~23P

주전자는 복합적인 형태이므로 세부 구조 단독으로는 그 기능이 발휘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혹은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그 구조별로 보완하면 훨씬 더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2.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 연구

### 1)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

주전자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능적 측면과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성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 조형성으로 인해 현대에 와서는 각 요소들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감성을 통해 독특한 조형을 보여주며 차나 물을 담는 그릇의 개념과 예술로서의 작품이 공존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주전자는 쓰임을 위한 것과 장식을 위한 것, 기능적인 주전자와 예술적인 주전자로 구분된다. 현대에 와서는 주전자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고자 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예술장르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전자는 그것의 구성 요소를 차용하여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매체로 이용되게 되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전자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현대도예의 경향에 따라 주전자는 용기라는 기능 외에 각 요소들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재구성하여 개성이 짙은 감각적이고 심미적 표현을 통한 순수조형의 주제가 되고 있다. 주전자는 무언가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의 형태적 특징과 독특하고 풍부한 구성요소 및 일상적인 이미지로 인해 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대 도자표현 영역에서 주전자는 이러한 조형적 특성들은 '실용성이 그 아름다움의 성질을 규정한다.'<sup>35)</sup>는 종래의 개념을 뛰어 넘어 자기 개성에 맞는 각자의 스타일과 방법 등을 사용하면서 실험정신과 신선한 시각을 갖는 주전자의 조형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전자의 기본 형태인 몸체, 손잡이, 뚜껑, 수구 등의 구조적 특징을 다각적인 구성을 통해 조형적 가치와 기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전자의 고정된 형태 관점에서 벗어나 개성적이고 재미있는 형태 감각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기능적 측면 또한 최대한 고려하여 주전자를 조형의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35) 야나기무네요시, 「공예문화」, 신구, 1999, P7820~23P

## 2) 주전자의 조형적 분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술의 표현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장르간의 벽을 없애고 동시에 새로운 조형의 출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도예의 탈 실용화 현상은 도자 주전자 조형에도 실용중심의 주전자와 함께 시각중심의 조형주전자로 발전하였다.<sup>36)</sup> 다음은 이러한 주전자의 조형적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1) 풍자적 유형

한 개인의 것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사회의 것 일수도 있는 사회에 존재하는 우행이나 악행을 풍자하여 그 풍자의 대상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웃음이나 분노를 유발시키는 유형을 가리킨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야기되는 황금만능주의와 도시공해, 인간성 상실 등의 병폐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현실 고발적인 것으로 이런 유행의 작품들은 대부분 표현방식이 강력한 이슈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정교하고 개성적인 작품들이 많다. 리차드 노트킨(Richard Notkin)[도 16]의 <Skull Teapot> 작품은 피라미드 동체에 해골의 형상을 넣어 찻주전자로 변형시켰고 모든 세부까지 아주 완벽하게 처리 되어 있다. 그는 동물의 해골을 죽음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생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해골은 죽음에 대한 상징에서 분류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여 해석했다. 그는 찻주전자를 전통에서 이끌어내어, 정치적인 쟁점들을 다루는 일종의 전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로 전환시켰다.

아드리안 삭스(Adrian Sax)[도 17]의 <Ampersand Teapot> 작품은 18세기 유럽 궁전 도자기를 장식적 골동품이라고 하기보다 권력과 특권에 대한 기구로 보고 궁전의 사치를 풍자한 것이다. 그의 작품은 매우 장식적이고 회화적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완전히 새로운 면이 있다. 즉, 그의 작품은 갖가지 양식과 문화적인 도용, 재치 있는 역설들을 종합한 일종의 슈퍼 매너리즘식 짜 맞추기 라고 볼 수 있다.

아드리안 삭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짜 맞추기는 장식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고안된 복합된 조형물이다. 반면에 그 외의 상징이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 또는 날카로운 풍자 등의 다른 요소들은 은근하게 드러나게 된다.<sup>37)</sup>

36) Rose Slivka, 「새로운 도자의 출현」, p200



[도 16] Richard Notkin, Skull Teapot



[도 17] Adrian Sax, Ampersand Teapot

## (2) 실사적 유형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풍자적 유형의 주전자와 유사점이 많지만 오히려 사회적 상황과는 상이한 형태로 불안한 사회현상과 감정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 고양이, 집, 배, 물고기 등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서 그 대상을 찾는다. 기능성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실용제 일주의 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되는 표현으로 단순히 주전자의 구성적인 이미지만을 사용해 다양한 성형기법과 개성적인 형태로 보는 즐거움을 준다.

Wedgwood의 <Pineapple Teapot>[도 18]은 주전자의 구성요소인 뚜껑, 손잡이, 몸체, 주구들과 실제적인 형태의 결합으로 주전자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박은정의 <Korean Landscape II>[도 19] 작가는 여러 가지 자연물의 실물을 석고 캐스팅 방법으로 실물을 직접 뜯 후 그것을 조합해 나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 주전자의 구조를 염두 해 두고 간결하게 완성시킨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소재들을 접합하면서 이루어진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소재를 찾아 추가하기도 한다.<sup>38)</sup>



[도 18] Wedgwood, Pineapple Teapot



[도 19] 박은정, Korean Landscape II

37) 신상호 「현대도예 - 미래를 향한 움직임」,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3

38) 신상호 「현대도예 미래를 향한 움직임」,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3



### (3) 유희적 유형

유희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작업 자체의 유희 그리고 형태 색채, 표면처리에서 보여 지는 유희성이 원초적인 생명력의 근간을 이루며 또한 점토의 속성을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이 유형의 작가로는 독특한 주전자 구조와 세련된 구성양식을 시각적으로 결합한 작품들로 기능을 암시하면서도 결코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외부형태의 조각적인 요소와 볼륨을 중요시한 용기를 표현한 존길(John Gill)이 있는데 그의 작품[도 20]은 독특한 주전자 구조와 세련된 구성 양식을 시각적으로 결합하여, 아름다운 용기의 미학을 창조하였다. 주전자나 물병의 모양의 작품들로 기능을 암시하면서도 결코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페르시아 용기의 매력에 감명을 받아 외부 형태의 조각적인 요소와 볼륨을 중요시한 용기를 주로 표현하였다.

베티 우드만(Betty Woodman)[도 21]의 작품은 적절한 형태와 손잡이, 주둥이, 뚜껑, 심벌, 외각선, 질감 등을 보여줌으로써 주전자의 용기로서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희성의 감각은 작업 자체에 대한 사고에서 출발하여 점토를 성형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표면처리, 색의 과감한 사용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유희성이 원초적인 생명력의 근간을 이루며 또한 점토의 속성을 가장 쉽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도 20] John Gill, Teapo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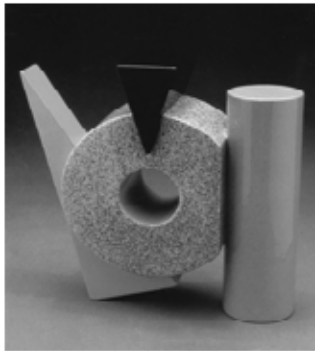
[도 21] Betty Woodman, poulenc, 2002

### (4) 기하학적 유형

일체의 장식성을 제거하고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 즉 선과 면에 의해 이루어진 구, 사면체, 육면체, 원뿔 및 다면체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단순, 명쾌한 느낌을 준다.<sup>39)</sup> 또한 서로 어울리는 오브제들을 의도적으로 결합시켜 시각

39) 한석우, 「입체조형-이론과실제」, 외진사, 1991, p86

적 흥미를 이끌어 낸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마이클 듀발(Michael Duval), 폰팁(Pomtip Sangvanich), 피터 쉬어(Peter Shire)가 있다.



[도 22] Michael Duval, untitled, 1987



[도 23] Pomtip, Geometry Teapot, 2001



[도 24] Peter Shire, Gibet, Steam, 1980

#### (5) 기능적 유형

장식성을 제거하고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새로운 형태적 변화를 준 것들로, 주전자가 가진 조형성과 기능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개성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마렉세쿨라(Marek Cecula), 이도마사노부(Masanobu IDO)가 있다.

Marek Cecula는 폴란드 출신의 도자 디자이너이다. 주전자에서 주구의 역할이 액체를 따르는 것 외에도 손잡이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개의 주구를 몸체에 결합함으로써 조형성 또한 느낄 수 있다.[도 25]

Masanobu IDO 작가는 몸체에 붙어 있는 주전자의 손잡이와 주구의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었다.[도 26]

Michael Weaker의 주전자는 단순하고도 유기적인 형태이다. 사용자가 주전자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전자의 부드러운 형태를 느낄 수 있게 고려하였다. 주구를 덮는 부분은 고무재질로 하였다.[도 27]

Kevin Andrew Morris 이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은 몸체에 두 개의 주구를 결합한 뒤 손잡이를 달려있는 형태이다. 기능성 보다는 주전자 구성요소의 조형성을 활용한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이다.[도 28]



[도 25] Marek Cecula, Dictator teapot, 2007 [도 26] Masanobu IDO, 하나의, 2004



[도판 27] Michael Weaker, bilu teapot, 2011 [도판 28] Kevin Andrew Morris, teapot, 2012

### 3. 청화의 일반적 고찰

#### 1) 청화의 기원

청화백자는 백자 유약 밑에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붓으로 문양을 그린 후에 투명유를 씌워 환원염으로 구워 흰 바탕에 아름다운 청색의 문양을 띠오르게 한 것이다. 청백의 강렬한 색상대비로 상쾌한 느낌을 주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청화백자는 송대에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으나 고화도용 코발트의 도입 시기는 14세기 초 이후일 것으로 보이며, 페르시아를 비롯한 근동지역에서 코발트블루가 도기장식에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고, 원과 명초에 사용된 코발트 안료가 서방으로부터 수입된 것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슬람의 코발트블루 도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화백자는 원대 14세기 초 이후에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발전은 원 제국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하면서 비롯되

었는데, 무역의 경로인 실크로드를 따라 서방으로 전진하면서 코발트의 수입과 청화자기의 수출에 더욱 활기를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도자 생산의 중심지였던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경덕진의 도공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40)</sup>

## 2) 동·서양의 청화

### (1) 중국

중국 청화의 기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 중국의 청화자기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원료에서 기술까지 모두 페르시아에서 유입되었다는 설이다. 또 하나는 중국자체에서 청화기법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수입한 코발트안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페르시아산이 맞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료문제에 국한된 것으로서 모든 기법 그 자체는 중국에서 성립되었다는 설이다. 참고로 중국의 학계에서는 수입코발트 안료와 중국 내 코발트안료의 어느 쪽이 먼저 청화자기 제조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이다. 청화자기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유하채자기(釉下彩磁器)에 해당한다. 즉 유면 밑에 채색하는 것과 코발트안료를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요한 기술적 요소이다.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이미 당대에는 초보적이지만 존재하고 있었다. 원대(元代)의 경덕진에 있어 청화자기가 생산되기 이전에는 당대(唐代)의 호남성(湖南省)장사요(長沙窯)(9세기)에서 이미 동(銅)을 함유한 광물을 유하채안료(釉下彩顔料)로 사용해 유하채도기(釉下彩陶器)의 제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북송(北宋)시대에 들어와 이 장사요의 유하채장식기법은 화북성 자주요에 계승되게 되며, 도공들은 자주요 근처의 철분을 함유한 광물을 안료로서 백지흑화(白地黑花)라고 칭해지는 유하철화자기(釉下鐵畫磁器)를 제작하게 된다. 유하채기법(釉下彩技法)은 당대(唐代) 후기 9세기 중엽에서 시작되어 13세기후반의 원대에 이르기까지 400년에 걸치는 발전기간을 거침으로서 완전한 장식기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코발트를 발색제로서 사용하는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된 보고는 없다. 전국시대의 무덤에서 일군(一群)의 유리유를 바른 도기가 출토되었으며 이 유리유에 보여지는 남색은 코발트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도기 유리유의 발견에 의해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이미 코발트안료의 사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대에는 도자기의 발색제로서 코발트의 사용은 이미 일반화 되었으며 특히 당삼채

40) 김태연, 「중국,일본,유럽도자기들 통한 한국도자의 연구」, 2005

중에 보이는 남채, 남유색의 도기에는 코발트가 사용되었다.<sup>41)</sup>

그러나 송대(宋代)의 청화의 경우 중국과학원에서 분석한 코발트안료성분을 보면 ( $MnO/CoO$ 의 비는 10.25)( $Fe_2O_3 / CoO$ 의 비는 0.16)이라는 수치가 계산되었기에 이는 해외의 코발트안료의 수치와 다르며 발색에 있어서도 약간 암갈색 및 흑색을 띄고 있어 중국산 코발트 토광(土鑛)을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송대에 사용된 중국산 코발트의 토광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원대에 청화자기를 제조한 생산지로서 강서성 경덕진과 길주, 절강성의 강산현, 운남성의 옥계현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화자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지, 유약, 코발트안료 등의 품질은 시대별 또는 생산지에 의해 품질의 차이가 보여진다. 그 가운데 원대의 경덕진 14세기 전후의 청화자기는 제조기술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 도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원대의 청화자기에 사용된 청화안료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과 국내산 등 두 종류가 있다. 청화안료의 원료가 되는 토광은 중국의 운남성, 절강성, 강서성 등의 지역에서 산출되었다. 경덕진 호전가마에서 산출된 도편의 청화안료를 분석하면 청료에 포함된 망간의 양의 매우 적으며 철의 함유량이 다소 많다. ( $Fe_2O_3 / CoO$ 는 3.74~16.19) 이 도편(陶片)은 수입된 청료(靑料)를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원대(元代)의 치정양식(治定樣式)에 속하는 대형의 청화자기에 는 주로 수입 청료가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산의 청료(靑料)는 흑갈색을 띄며 수입 청료에서 보이는 흑색반점(黑色斑點)은 나타나지 않는다. 문양도 비교적 간략하며 소형 기물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청대 강희제때의 청화자기는 중국산의 상등(上等) 청화안료로 그림을 그렸는데, 농도가 균일하고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다워 특별한 품격을 이루고 있어 청화라는 예술 분야가 이미 새로운 경지에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에서의 청화기법은 원대에서 시작하여 17세기 무렵에 그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발트 안료의 사용은 당대 후기 무렵부터 사용되었고 중국산의 코발트안료인 오수의 사용은 송대 무렵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해외와 중국산의 코발트안료는 그 발색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사용한 복합광물인 오수는 조선백자의 토청과 그 구조에 있어서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수는 중국산 청화안료를 가리키는 고유 명칭으로 아랍에서 수입한 회청과는 다른 중국청화백자 특유의 색상을 보여 주고 있다. 오수는 나아가 조선중기의 청화백자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일본의 청화백자의 발색에 큰 영향을 주게 된

41) 이은미, 일본아리타지역의 청화기법을 이용한 실내도자장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다.<sup>42)</sup>



[도 29] 명청 화운용문상이병 [도 30] 청 화백자봉화문항아리 [도 31] 청화백자절지화문대접  
원대(元代)                      청대(清代)                      명대(明代)

## (2) 한국

우리나라에 중국의 청화백자가 전해진 가장 이른 기록은 「효종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태종(1400~1418)이 1380년 고려의 국자박사로 있을 때 애용하던 청화 잔을 태종 즉위 후 성균관에 하사 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선에서 청화백자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를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록에 의하면 세종(世宗)연간에 수입 청화로 청화백자를 시작하였고 늦어도 세조(世祖)연간(1455~1468) 초반부터 청화백자 제작에 큰 힘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청화의 제작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세조연간에 사용된 청화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회회청 이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회회청을 구하여 그림을 그리니 중국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 기록을 보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청화가 조선에서 다른 안료들과 달리 절대적 관심을 끌게 된 원인은, 철화나 진사의 경우 발색의 정도가 불안정해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화의 경우 유하채기법의 자기 중 시문 효과가 뛰어나고 고급백자에 어울리는 고급안료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청화백자의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세조연간(1455~1468)에 청화안료의 구입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었고 146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청화안료 구입이 어려워서 국산 청화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국내에서 토청(土靑)을 구하려고 한 시기는 1463년부터 1469년까지 명대의 천순7년에서 성화5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페르시아산 청화안료가 중국에서 서서히 고갈되어가는 시기에 해당된다.

42) 이은미, 일본아리타지역의 청화기법을 이용한 실내도자장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기록에 의하면 세조 9년부터 예종1년까지 7년 동안 4회에 걸쳐 자체개발에 의한 국내산 청화안료의 채취와 이것을 이용한 청화백자의 번조에 관한 2번의 기록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것은 중국과의 교역중단으로 고가의 청화안료 수급이 원활치 못해 국내산 청화안료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세조시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43)</sup>

그러나 성종(成宗)연간(1469~1494)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 회청을 구하여 청화백자를 제작한다.”는 기록과 함께 성종 19년과 중종36년의 기록에도 중국을 통한 회회청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보아 국내산 청화안료의 개발은 단지 시험번조의 차원에만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성종 시기에 청화의 사용법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회회청은 석망치로 푸른 덩어리를 부수어서 그 가운데 좁쌀 같은 것을 취하여 사용한다.”고 기록되어있다.

당시에 가공되지 않은 회회청 원석을 가공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세조시기 청화 안료의 자체개발노력으로 청화안료원석의 가공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에 발전의 초석을 다진 조선의 청화백자는 17세기에 이르러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20)을 겪으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 두 난으로 인한 조선의 피해는 극심했으며 특히 고급백자에 속하는 청화백자의 생산은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된다.

현종(顯宗)시기에는 청화안료의 사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청화안료는 모래처럼 잘게 갈아서 사용하며, 물건이 귀하여 수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본바탕은 검은나 구우면 푸른색이 나며 청화는 굵고 나면 휘발하여 날아가는 성질이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당시의 청화안료의 특성으로 보아 중국산 청화안료임을 알 수 있고 아직까지도 귀하고 비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번조 후 청화안료의 특성에 대해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 성종시기에 사용된 페르시아산 청화안료는 조선 중기 현종시대에 이르러 중국산 청화안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중국산 청화안료 가격의 하락으로 수급이 원활해져 청화백자의 제작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청화백자의 발달에는 재료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선 청화의 재료는 조선전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회회청을 근간으로 기법이 정립되었고 조선중기에 이르러 중국

43) 이은미, 「일본아리타지역의 청화기법을 이용한 실내도자장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국내산의 청화안료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19세기에 이르러 일본을 통한 서양청화 즉 합성청화안료로 바뀌는데 이를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화백자가 제작 되게 된다.<sup>44)</sup>



[도 32] 송죽문호, 15c



[도 33] 청화백자화조문호, 17c



[도 34] 청화백자운룡문호, 18c

### (3) 일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에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주었고 도자산업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조선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피랍된 조선 사기장에 의해 세워진 아리타요에서 일본 최초의 백자를 성공함에 따라 비로써 자기생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1615년 조선도공 이삼평에 의해 백자용 도석을 발견한 이래 1620년대 청화백자 제작의 기반을 닦았으며, 이어 1640년대에 중국 오채(五彩)와 유사한 유상회자기인 색회자기를 만들면서 청화와 유상색회자기의 시대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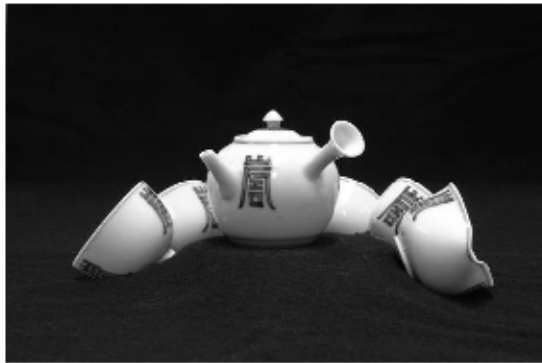
1620년대 당시의 청화백자는 조선도공에 의한 조선품으로 제작되었으며 청화안료는 주로 나가사키 항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산의 청화안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이 경우 유입 경로에 있어 조선을 통한 청화안료의 유입을 간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의 기록들 중 자기의 성공에 이르기 전까지 조선의 흙과 유약을 쓰시마섬을 통하여 수입하였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에도 부산의 삼포를 통하여 다량의 도기용 흙과 유약들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나가사키에서 본격적으로 서구와의 무역이 시작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량의 중국산 청화가 수입되며 이는 조선의 청화백자와는 달리 짙은 청화의 발색과 여백이 적고 많은 문양이 그려지는 일본청화의 특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금도 청화안료를 “고스(呉須)”라고 하

44) 이은미, 「일본아리타지역의 청화기법을 이용한 실내도자장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는데 이는 코발트산화물을 함유한 광물의 이름으로서 모래처럼 검고 청록을 띄고 있다. “고스(吳須)”의 어원은 일본 고유의 것은 아니고 중국남방 또는 조선의 토속어를 음역한 것일 것이다. 이는 오수의 생산지이며 수출항이기도 했던 광둥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 후 일본에서도 오수의 채굴에 힘을 쏟기 시작하는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채광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본의 오수는 코발트의 함유량이 적어 발색이 선명하지 않아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양이나 품질 면으로 보아도 적합하지 않았다. 소량이기는 하나 교토와 노도반도를 중심으로 생산되었고 그 중 노도반도의 오수는 “노도고스(能登吳須)”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근대에 이르러 국내의 오수생산은 거의 중단되며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의 청화대신 서양의 청화안료가 다량으로 수입되게 된다.<sup>45)</sup>



[도 35] 청화백자수자문다관, 에도-명치, 18C [도 36] 청화백자화조문 V.O.C명접시 18C

#### (4) 동남아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한 관계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국 도자의 영향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현지 도자 산업 부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 제작 도자기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베트남 청화백자는 제작 양식과 관련하여 이미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중국 경덕진 청화백자와의 영향 관계로서 주목되었다. 또 중국 운남 지역 청화백자 간의 공통된 양식 등장 및 베트남의 코발트 염료 수입 문제 등에 관해 운남 청화백자와의 연관성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청화백자는 15~16세기에 수출도자로서 가장 창성한 황금기를 맞는다.

태국의 경우 역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를 상대로 자기 무역을 펼쳤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청자와 철회자기가 있다. 이들의 자기 무역이 가장

45) 이은미, 「일본아리타지역의 청화기법을 이용한 실내도자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왕성했던 시기는 15세기로 태국 도자 산업의 발전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기에 들어서 중국의 청화백자가 무역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성장하면서 태국 도자무역의 전성기는 하락세를 걷게 되고 내수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sup>46)</sup>



[도 37] 백자청화송죽매문각병 15C



[도 38] 백자청화쌍조문반 15C

#### (5) 아랍

명대에 들어서 경덕진 관요에서 본격적으로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으로 장식된 청화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기형 역시 이슬람권의 금속기 기형들을 모방한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5세기 영락 시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16세기 정덕년간에는 코란이 새겨진 이슬람풍 자기 제작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때는 사회적으로도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덕제 스스로도 이슬람교를 크게 신봉하였기 때문에 경덕진 관요 자기에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sup>47)</sup>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 경덕진 도자 제작 양식이 변화하는 한편, 중국도 아랍을 상대로 자기 무역에 적극적이었다. 일반적인 중국의 자기 무역은 내수용 자기 양식이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상품들은 수출국의 요구에 맞게 맞춤 제작되기 시작했다. 명대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대형의 접시, 주전자 등이 현지 사정에 맞게 제작·수출되었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는 이슬람 문화 즉, ‘회회’라 불리는 무슬림들이 중국 서부지역에 정착하며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였고, 명 중엽에 이르러서는 국경 지대 근처에 약 10여종의 무슬림 소수 민족이 생겨나기도

46) 방병선, 중국도자사연구, 2012, p433

47) 방병선, 중국도자사연구, 2012, p436

하여 이들이 당시 명대 이슬람풍의 도자기를 소비하는 주요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슬람 지역 중에서도 특히, 터키 오스만제국 시절의 이즈닉 도자기는 14~15세기 때부터 원·명대의 청화백자, 심지어 청자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양식들이 등장하게 되어 당시 중국 수출자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청화백자가 이슬람 문화권에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이즈닉 도자기는 중국의 청화백자를 모방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기형이나 문양 등 중국의 청화백자와 상당히 유사하게 되었다.<sup>48)</sup>



[도 39] 이즈닉 대접, 오스만, 15c~16C

[도 40] 이즈닉타일, 16C

#### (6) 유럽

유럽은 16세기 초 포르투갈을 선두로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다량의 중국 자기를 무역품으로 취급하였다. 16세기 중엽 가정 연간(1522~1566)부터 경덕진에서는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는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 공사를 설립하여 중국 남해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자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를 통해 유입된 막대한 양의 중국자기는 유럽 각 지역으로 전해졌고, 그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프로이센 등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앞 다투어 중국의 자기를 포함한 동양의 진귀한 물건들을 수입하였다.<sup>49)</sup> 당시 동인도 회사의 주주(株主)마을 가운데 하나인 델프트에서 자기 제작이 시작된다. 1620~1630년경에 도자 기법의 발전의 델프트에서 자기와 비슷한 새로운 도기를 생산하게 되는 데 이를 델프트 도기라고 명하였다. 비싼 자기를 쓸 수 없던 서민층을 중심으로 델프트의 도자기 제조업은 1640~1650년대에 매우 활발해졌다. 중국의 정치

49) 방병선, 중국도자사연구, 2012, p438

적 혼란기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 매년 수입되어 온 중국의 청화자기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델프트 도기는 급속히 발전해 갔다. 그리하여 점차 중국의 자기를 능숙하게 모방할 수 있었고, 이후 일본 이마리자기 까지 모방하였지만, 이것은 도기 일뿐 단단한 자기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유럽의 황제들은 연금술사를 불러 백자를 만들어내라는 주문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1710년 독일 드레스덴 작센왕국의 황제 아우구스 2세의 명을 받은 연금술사 베트거에 의해 백자 만드는 비법을 알아냈다. 베트거의 다음 세대로 1720년경에 요한 그레고리우스 헤를트 일족이 마이센 가마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1725년에 청화자기와 채회자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당시에는 중국풍의 자기를 만들려고 했고, 헤를트의 그림은 동양풍의 교본에 따랐으나 그들은 한편으로 항구의 광경, 풍경화, 수렵장면, 유럽풍의 꽃문양 등을 묘사하기도 하며 자신들만의 특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독일 마이센은 명품 마이센 자기를 만들기 시작해 19세기 황금기를 거쳐 오늘날 세계 도자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마이센의 성공은 네덜란드의 델프트 자기와 프랑스의 세브르 자기, 영국의 본차이나까지 유럽 자기의 황금기를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sup>50)</sup>



[도 41] 델프트청화접시 18C [도 42] 마이센접시 17C [도 43] 마이센블루어니언 18C

### 3) 현대도예에서 표현된 청화

스페인 작가인 하이메 하몬은 기능적 배려보다는 개성이 강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이다. [도 44]에서의 작품 2011런던디자인 워크에 맞춰 일본의 도자기 회사 kutani Choemon과 합작으로 디자인한 작품 중 하나이다. 백색의 간장병에 하이메 하몬이 코발트로 장식하였다.

Brendan Lee Tang 작가의 조형작품은 동양의 전통적 도자기형태와 미래에서 쓰일듯한 형태를 접목시킨 작품이다. 서로 대비되는 요소로 극적인 효과를 느

50) 방병선, 중국도자사연구, 2012, p437

길 수 있다.[도 45]

전상희는 동화 속 한 장면, 도시의 마천루, 관광 명소 등을 그녀만의 세상인 스노우볼 속에 재현하여 보여준다. 이 스노우 볼 속 세상의 주인공은 유머러스한 요소를 결합한 상상의 동물들이다. 정형화된 형태를 비틀고 변형하여 백자로 빚은 후에 청화 페인팅으로 패턴을 넣는 방법으로 도자 오브제를 흥미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도 46]

김애영 작가는 매병 모양의 청화 백자를 중심축으로 4등분하고 그 부분들이 모여 온전한 용기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항아리를 고안했다. 해체주의 감성으로 분리, 재구성한 이 작품에서 각 부분의 항아리들은 부분이면서도 각기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다. 매병의 안쪽 기면에는 패턴이 들어갔으며 외부의 기면에는 캐릭터나 인물상 전통적인 문양이 시문되었다.[도 47]

이세웅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작업의 모티브를 찾는다. 그의 작품은 한국 민화에서 볼 수 있는 꽃이나 벌레 같은 자연의 모습과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등이 공존하는 상반된 이미지를 담는다. 회화 작업도 병행해 캔버스에 오일이나 아크릴로 누드를 그리고 총과 악어, 술병이 그려진 팬티를 도자기로 만들어 붙이거나 가방을 도자기로 만들어 캔버스에 붙이기도 한다.[도 48] 이양재 작가는 백자 위에 자연의 문양을 패턴화한 자유롭게 그린 청화문양을 주병의 한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문양이 더욱 돋보이게 한다.[도 49] 이승희 작가는 전통적인 도자기법을 활용하여 흔히 만들어 왔던 전통적인 도자기의 형태를 평면화 하였다. 배경 부분은 시유하지 않아 질감의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비를 이뤄 입체감을 주고 있다.[도 50]

김순식 작가는 동양예술의 정신과 회화기법을 도자조형의 근간으로 두고 있다. 청화의 발색과 농담 표현을 다각도로 나타내기 위해 환원, 중성, 산화염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도 51]



[도 44] Jaime hayon, soy pot bird, 2011



[도 46] 전상희, 상상의 동물, 2011



[도 48] 이세용, Handbag, 2010

[도 45] Brendan Lee Tang, Manga Ormolu, 2011



[도 47] 김에영, 피봇, 2011



[도 49] 이양재, 요산요수주병, 2012



[도 50] 이승희, KAO110603,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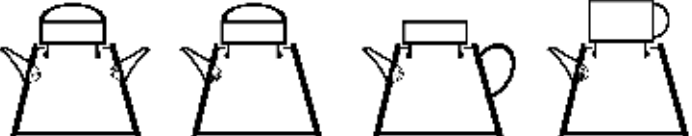

[도 51] 김순식, untitled, 2007

## VI. 작품제작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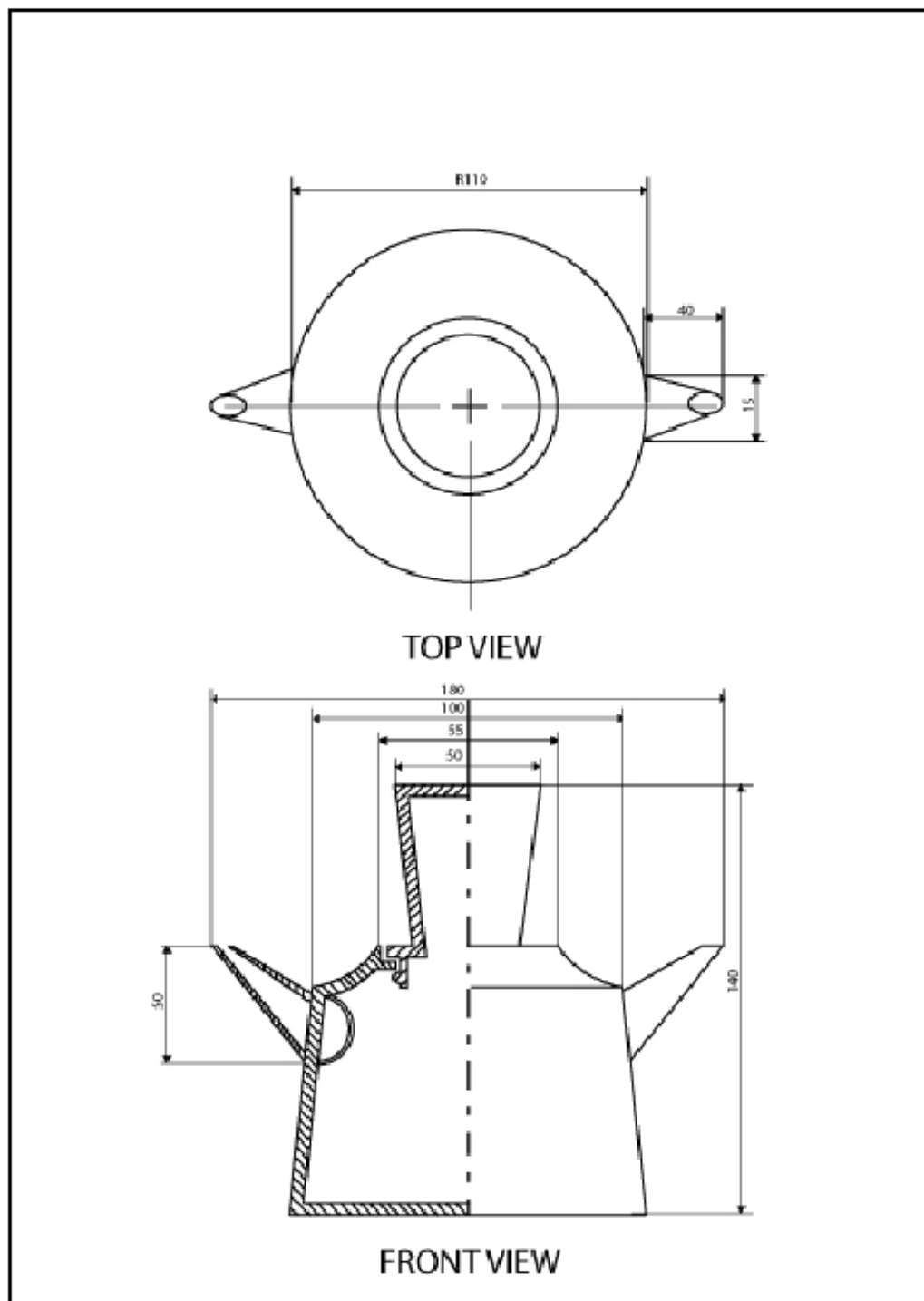
### 1. 작품계획

본 연구는 주전자의 형태변형을 위해 구성요소들을 재조합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전자가 가진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주전들과는 차별된 형태를 갖춘 도제 주전자를 제작하고자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내고자 하는 주전자의 형태 변형 요소 중에서도 뚜껑에서의 변형이 컸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주로 주전자의 몸체와 뚜껑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방법, 긴 형태의 뚜껑을 몸체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한 열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뚜껑의 굽 부분에는 걸림턱을 만들어 몸체와 뚜껑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표 2, 3]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 획일화된 주전자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또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손잡이에 따라 사용자가 힘을 더 필요로 하거나 무게를 더 느낄 수가 있기에 일반적인 주전자와는 다른 형태일 때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뚜껑과 손잡이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주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붙을 위치와 각도를 정하였고 형태는 원, 사다리꼴, 사다리꼴과 원통이 결합된 형태로 제작하였다. 크기는 400cc 전후로 하였으며 주전자에 기울기를 주었을 때 액체가 배출되는 각도를 가늠하고, 기능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였으며 조화로운 형태가 되도록 제작과정에서 조금씩 수정 하였다. 문양에서는 기본 조형요소인 점, 선, 면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패턴이나 추상적인 형태를 자유롭게 시문하였다.

|    |  |
|----|--|
| A형 |  |
| B형 |  |
| C형 |  |

[표 2] 주전자의 형태 분류 및 변형의 예



[표 3] 뚜껑, 주구 변화 변화형 주전자의 도면



## 2. 제작과정

### 1) 소지

소지는 백자 소지를 선택하였다. 백색의 소지는 발색이 좋아 장식을 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바탕이 된다. 장점이 있지만 가소성이 떨어지고 무리하게 기물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건조시킬 경우 쉽게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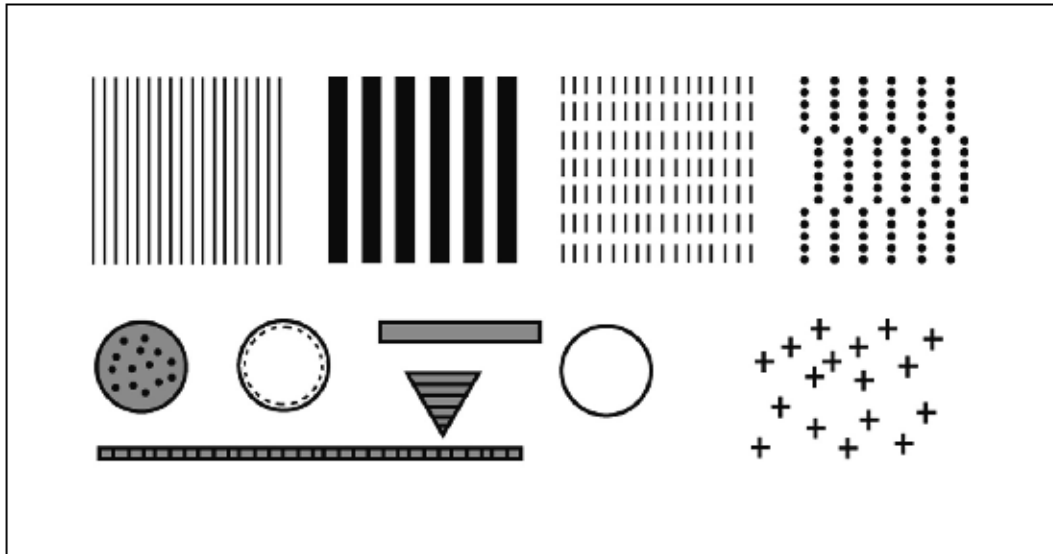
### 2) 성형

작업은 물레성형을 중심으로 성형하였다. 작업은 형태를 만드는 과정과 문양을 시문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태는 물레성형의 특성상 대칭이 되는 구형 이거나 원통에서 변형된 형태로 몸체의 크기는 15cm 전후로 하였다. 소지의 특성상 제작과정 초기에 계획했던 형태에 맞는 두께 조절이 어려워 지름 20cm, 두께 1cm의 원형석고판을 물레 위에 부착하여 성형하였다.

성형된 기물을 동일한 건조 상태를 위하여 성형된 기물을 스티로폼박스에 넣고 건조시켰으며, 주구는 재벌소성에서 형태가 틀어질 것을 고려해 물레성형 시 주구의 형태를 성형한 뒤 반대방향으로 재배열함으로써 주구의 형태가 틀어지는 현상을 최소화 하였다. 뚜껑은 몸체의 전 부분보다 1mm~2mm 크게 성형하였다. 손잡이의 경우엔 얇은 판이나 코일링 기법으로 형태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스티로폼박스에 넣어 건조시켜 하루나 이틀이 지나고 난 뒤 적당한 건조가 이루어 졌을 때 굽짜기 과정과 형태를 다듬는 과정을 거쳐 몸체와 구성요소를 결합 하였다. 건조가 너무 진행된 경우엔 소지가 쉽게 뜯겨 나가는 현상 때문에 형태의 성형이 힘들고, 건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태의 변형이 쉽게 오기 때문에 소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2]와 같이 A형, B형, C형의 형태를 기본형으로 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몸체에 붙여 서로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뚜껑과 손잡이가 결합된 경우에는 주전자를 잡고 따르거나 이동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체에 맞물리는 뚜껑의 굽 부분에 걸림턱을 부착하였다.

### 3) 채색

1차 소성 한 기물에 [표 4]에서 나타난 문양을 기본으로 하여 청화안료로 시문하였다. 동체와 뚜껑, 손잡이 부분에 선택한 문양요소들이 어울리도록 표현하였다.



[표 4] 문양의 형태

### 4) 시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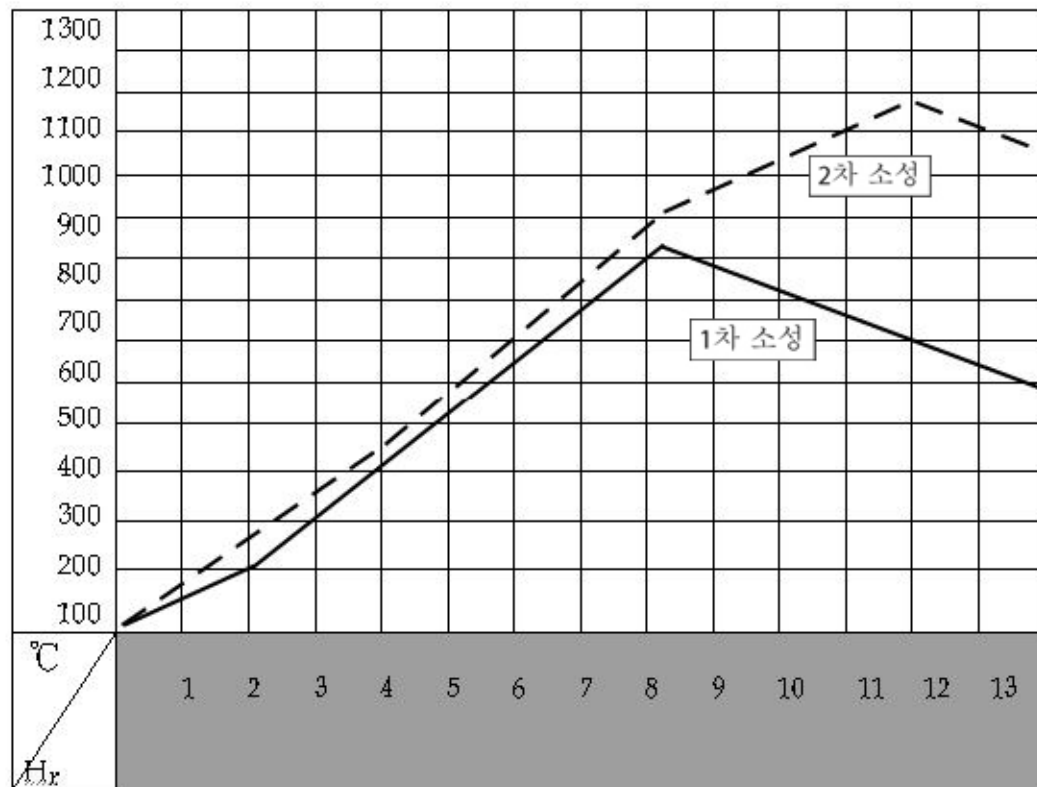
시유는 앞서 1차 소성된 기물을 다듬고 난 뒤 얇게 덧병 시유 하였다. 그전에 시유로 인해 동체안의 여과구멍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발수제를 발라서 그 부분은 시유가 되지 않게 하였고 주전자의 전 부분과 뚜껑의 굽 부분 즉 기물이 서로 닿는 부분은 발수제나 라텍스를 미리 사용하여 유약이 시유되지 않도록 한다. 형태의 경우에 따라 뚜껑의 굽 부분에 걸림턱이 있어 시유를 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유약은 투명유를 사용하였다.

| 원료     | 부여장식 | 규석 | 석회석 | 카올린 | 탄산바륨 | 하소황석 |
|--------|------|----|-----|-----|------|------|
| 조합비(%) | 45   | 23 | 16  | 8   | 5    | 3    |

[표 5] 투명유 조합비

## 5) 소성

소성은 1차 초벌소성을 한 뒤 2차 환원소성을 하였다. 1차 소성은 소지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문양의 장식을 하는데 있어서 다루기 편리하다. 850도의 온도에서 8시간 소성하였고 2차 소성에서는 가마내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불완전 연소함으로써 연소 가스 중 일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환원소성을 이용하였다. 1250도 소성하였으며 980도~990도의 온도에서 불완전 연소하여 1250도 까지 천천히 소성하였고 총 소성시간은 약 12시간 소요했다.



【표 6】 소성그래프

### 3. 작품해설

#### [작품 1] Teapot - 1

본 작품은 동체는 백자 주전자의 [표 2]의 A형태 이다. 전체적으로 선으로 시문을 하였는데 뚜껑부분에서 선의 굵기 변화를 주었다. 동체는 구의 형태이며 뚜껑에서 형태의 변화를 주었다. 뚜껑은 동체의 구연부에 크기보다 크게 하여 덮어씌우는 형식으로 하였다. 1차소성은 850도에서 소성하였으며 투명유로 덤벙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1250도에서 환원소성 하였다.



[작품 1] Teapot - 1, 110x95x140mm, 1250℃ 환원소성

**[작품 2, 3] Teapot - I, II**

Teapot - I, II 은 [표 2]에서의 C의 형태에 속한다. 하지만 손잡이의 위치에 따라 Teapot - I 는 관(罐), Teapot - II 은 호(壺)로 분류할 수 있다. 문양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Teapot - I, II 의 경우도 뚜껑에 변형을 주었으며 동체의 구연부에 뚜껑이 맞는 크기로 제작하였다. 1차소성은 850도에서 소성하였으며 투명유로 덤병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1250도에서 환원소성 하였다.



**[작품 2] Teapot - I, 100x90x140mm, 1250℃ 환원소성**



[작품 3] Teapot - II, 120x90x100mm, 1250℃ 환원소성

#### [작품 4] Teapot - IV

[표 2]의 A형에서 손잡이가 위에 붙은 관(罐)의 형태이며 마찬가지로 뚜껑의 형태에 변형을 주었다. 장식은 [표 3]의 문양을 참고하여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으로만 표현하였지만 문양의 배치를 다르게 하여 다른 형태로 응용하였다. 1차소성은 850도에서 소성하였으며 투명유로 덤핑 시유하였고 2차소성은 1250도에서 환원소성 하였다.



[작품 4] Teapot - IV, 90x100x130mm, 1250℃ 환원소성

**[작품 5] Teapot - V**

**Teapot - V**는 여과구멍이 없는 슬주전자로 제작하였다. 뚜껑은 구연부에 맞는 크기로 제작하였고 점과 점선, 원의 문양이 기물에 시문되어 있다. 1차소성은 850도에서 소성하였고 투명유로 덤병 시유하여 1250도에서 환원소성 하였다.



**[작품 5] Teapot - V, 90x100x130mm, 1250℃ 환원소성**



## [작품 6] Teapot - VI

**Teapot - VI**은 주구와 뚜껑에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주전자 형태에서 주구를 하나 더 추가했지만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뚜껑은 형태적으로 긴 형태로 변형시키고 굽부분에 걸림턱을 만들어 뚜껑이 손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구와 뚜껑, 그리고 손잡이의 변형을 주어 조형성과 기능성이 결합된 형태를 얻을 수 있었다.



[작품 6] Teapot - VI, 90x120x125mm, 1250℃ 환원소성

[작품 7, 8, 9] Teapot - VII, VIII, IX

**Teapot - VII, VIII, IX** 는 이론적 배경에서 조사했던 병(瓶), 관(罐), 호(壺)에서 변형된 형태이다. **Teapot - VII** 은 병의 형태에서 변형된 것이다. 손잡이에 변형을 주어 주전자를 감싸서 잡는 형태로 변형시켰지만 작은 손잡이로 열차단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뚜껑 부분에 손잡이를 부착하였고 뚜껑 역시 걸림턱이 있어 주전자를 잡거나 이동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 하였다. **Teapot - VIII** 은 관의 형태를 하고 있다. 손잡이 부분이 구연부에 맞게 하였으며 따로 걸림턱이 있지는 않다.

**Teapot - IX** 는 호의 형태이지만 구성요소의 변형을 통해 손잡이를 뚜껑에 붙여서 제작하였다. 뚜껑 부분에 걸림턱을 만들어 들고 따르는 부분에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품 7, 8, 9] Teapot - VII, VIII, IX

90x100x110mm, 90x100x140mm, 95x1110x140mm, 1250℃, 환원소성

## IV. 결 론

주전자는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형태와 용도 또한 그 목적에 맞게 변하였다. 또한 동·서양의 차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삼국시대에서 현대까지의 도제 주전자를 살펴보면 과거 장식성과 실용성을 갖춘 기능적 용기에서 현재 독특한 형태의 오브제 주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주전자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에 초점을 맞추되, 주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최대한 살려 일반적인 형태의 주전자와 다른 디자인을 가진 형태를 연구, 제작하였다. 현대도예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청화의 사용된 사례나 주전자의 구조적 특징과 조형적 특징을 적절히 조화시켜 작품 속에서 본인이 나타내고자 했던 주전자의 새로운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론적 배경과 작품 제작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주전자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개념과 유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주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주전자가 실용적으로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전자를 제작할 시에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즉 소형 주전자를 제작할 때에는 주구의 끝부분과 몸체의 주입구, 손잡이의 끝부분이 수평을 이루는 구조가 될 때 한손으로 다룰 수 있는 구조의 기능성이 좋은 주전자를 제작할 수 있었다.

둘째, 주전자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제작한 현대도예작품의 조형적 분류를 통해 주전자가 갖고 있는 형태적 특성을 알 수 있었다. 구성요소가 어느 부분에 접합되느냐에 따라 조형적으로 다양하게 보일 수 있으며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전자를 제작할 때에는 주구와 뚜껑, 손잡이의 위치와 크기, 기울기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상·제작하여야만 기능적 결합을 막고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장식적 기법으로 택한 청화 기법의 분석을 통해 청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도예작가의 작품 및 제품사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양이 기물의 형태에 조화될만한 사례를 정리하고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 작품 작업 과정을 통하여 이론적으로나 작업과정에서 본인만의 작업형식을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첫째로 주전자의 몸체와 뚜껑에 손잡이를 접합하는 방법과 둘째로 긴 형태의 뚜껑을 몸체에 고정시켜 충분한 열차

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뚜껑과 몸체가 맞닿는 부분에 걸림  
턱을 만들어 몸체와 뚜껑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결과를 기반  
으로 주전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형태들의 조합에  
의한 새로운 조형적 형태들을 제시하려 하였다. 또한 독창적인 문양들을 연  
구·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한다면 조형성과 기능성을 갖춘 차별화 된 도제  
주전자를 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1] 닐 프렌치, 도자기 형태·장식·색채, 아트나우, 2005,
- [2]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1998.
- [3] 미스키타카토시, 김인규(역), 「동서도자교수사」. 눌와(주), 2001
- [4] 방병선, 중국도자사연구, 2012, p435
- [5]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8, p3065.
- [6] 신상호, 한국도예,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p12
- [7] 신상호, 「현대도예 - 미래를 향한 움직임」,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3
- [9] 야나기무네요시, 공예문화, 신구, 1933, P78
- [11] 염혜숙, 「홍차」, 김영사, 2004, 37-38p
- [12] 이경성, 「공예통론」. 수학사, p51
- [17] 이진수, 「茶의 이해」, 교례알리즘, 2005, 101p
- [18] 전완길(1987), 「한국화장문화사」, (서울:열화당), p197
- [19] 정영선(1990), 「한국 차문화」, 너럭바위, p229
- [20] 한석우, 「입체조형-이론과실제」, 외진사, 1991, p86
- [21] Rose Slivka, 「새로운 도자의 출현」, p200

### 학위논문

- [23] 김현경, 「시각적 즐거움을 담은 도제 주전자 형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10-11p
- [24] 박연태, 용기 주전자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25] 박차선, 도제 주전자디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26] 송누리, 도제 찻주전자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7] 육홍명, 고려시대 청자주전자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2.
- [28] 이주희, 유기적 곡선을 응용한 도제 주전자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29] 안혜숙, 「도제 커피포트의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27p
- [30] 주연희, 백자 주전자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

#### 학 회 논문

- [38] 박종훈, 고려조선조 주전자의 형태와 문양,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 발간 도예연구 제2집, 1997.
- [39] 임무근, 「미국 도자예술의 발전과 미국대학 도예교육」,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998,
- [40] 이은미, 17·18세기 한·중·일 청화발색과 청화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2011,

#### 웹사이트

- [41]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 [42] <http://www.daypark.net> 학술자료실

## **Abstract**

### **A Study on the Ceramic Teapot using shape variation**

Jang, Hyun Soon

(Supervisor Lee, Jung Suk)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eramic tableware has existed with society in each generation in our daily lives for a long time while being inseparable from human life. Teapots with a combination of functionality to pour liquid and formativeness have played multiple roles practically and decoratively. However, in contemporary ceramic art, most of works have a tendency to emphasize formativeness with the exclusion of practicality.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changes according to the function were investigated with emphasis on the formativeness while maintaining the shape and functional elements without separating the existing concept of a containe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consisting of a body, lid, spout and handle by selecting a material of teapot and to represent the formative image through multiple constituents. Moreover, this study aimed to show the variation of basic shape of teapots through formative expressions of the handle, lid and spout while maintaining the interior space of teapots and to product visually diverse teapots with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patterns and techniques using blue pigment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definition, historical considerations, and structur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is study find the original formativeness of teapots from works by existing potters for classification, investigated the definition and origin of blue pigments, and examined the formativeness shown in contemporary ceramic artworks. This study selected wheel throwing as a production method of ceramic artworks, created a form in the width of spheres and cylinders by transforming each constituent element, and formed the shape by combining

a handle with a lid or increasing the number of spouts. In this case, shape variation and visual effect were given by decorating the biscuit fired ceramic tableware using blue pigments. Whiteware body with excellent color development was used for production of ceramic artworks as a green body.

In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and made teapots with the general shape and other shapes by focusing on the formativeness of teapots, but maximizing the functionality of teapots. This study aimed to effectively represent a new shape by harmonizing the structural and formative features of teapots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structure to satisfy the function, formative classification through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blue pigments and of analyzing ceramic artworks of various potters.